

전북 불자들, 외국인 마음 어루만져

전주 우리는선우, 외국인 노동자 어울림 한마당

전북지역의 사찰들과 신행단체들이 오랜 타국생활로 지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어울림 한마당을 6월 15일 전북 완주군 현대자동차 인화관에서 열었다.

완주 송광사, 금선암, 월경사등 지역 사찰과 전주 우리는 선우, 천천클럽, 전북불교네트워크, 좋은 이웃 등이 주최한 외국인 노동자 한마당은 네팔, 스리랑카, 미얀마 등 15개국 400여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동참해 함께 어우러지며 즐기는 잔치 한마당을 펼쳤다.

오후로 9회를 맞은 이날 행사는 고국과 가족 결을 떠나 3D업종에 종사하며 우리나라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어려움과 외로움을 잠시나마 잊고 한국사람들의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며 한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현대자동차 민속극회의 길놀이, 시작으로 제기차기, 투호, 단체 줄넘기 등 간단한 게임을 통해 친목을 다지고 장기자랑을 하며 잠시나마 타국생활의 외

로움을 달랬다.

또 레크레이션 강사가 진행하는 여흥과 부채춤 등 우리 민속공연에 이어 현대차 노동조합서 준비한 자전거, 전자제품 등 푸짐한 경품이 주어졌고 유행이 지났거나 몸에 맞지 않아 버려진 의류 1000여 점이 노동자들에게 전달됐다.

현대차와 연계, 민속공연 등 선행

이미용봉사, 건강검진 등 호응 높아

외국인노동자 “한자리 모여 행복해”

행사장 한편에서는 전주 한사랑 봉사단원들이 이미용 봉사활동을 펼쳤고, 오랜 타국생활서 소홀하기 쉬운 건강검진도 이루어졌다.

오종근 우리는선우 회장은 “근로여건도 어렵고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한 외국인 노동



6월 15일 어울림 마당에 참석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박수를 치며 즐거워 하고 있다.

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용기 운영위원장은 “처음에 손을 다친 외국인 노동자를 만나면서 이 사람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한국사람도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왜 하필 외국인이나 냉소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불자로서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같이 해야겠다는 생각에 시작한 일이 오후로 9회를 맞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서 준비한 기념품과 경품을 한아름 받고 돌아갔다.

네팔에서 온 비노드 씨(34)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해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오랜만에 고국의 친구들과 한자리에서 만나고 외로움도 달랠 수 있어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종교 화합 위해 각 종교 성지탐방 진행”

광주종교인평화회의 상임대표 현지 스님 취임

광주종교인평화회의 상임대표에 원효사 주지 현지 스님(사진)이 취임했다. 광주종교인평화회의(kcrp)는 지난 13일 무등산 원효사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현지스님의 취임과 함께 김영태 명예교수(전남대) 초청하여 ‘이웃 종교의 이해와 상생 방안’에 대한 강연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광주종교인평화회의는 광주지역 6대 종단 지도자들의 모임으로 불교 현지스님, 개신교 장현권 목사(서정교회), 천주교 이우수 신부(광주교구 비서실 주임신부), 원불교 박덕규 교무(서광주교당 주임교무), 천도교 이우원 신도사, 향교 장원선 집교 등 종교지도자들이 참여하며, 종교간 화합·상생을 위한 정기적 모임과 종교간 문화적 교류, 지역내 현안에 대한 종교인들의 사회적 역할 수행 등을 수행하기 위한 모임이다. 특히 평화음악회 정기 간담회, 각 종교별 성지탐방, 이웃종교 소개 등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현지 스님은 사찰을 찾은 각 종교 지도자들에게 “빛과 열을 광주는 아미타신앙을 기초로 하여 조성되었으며, 많은 지명이 불교적 연원으로 이어져

다”며 광주지역 지명에 대한 설명을 하고, “다르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다름을 인정하고 노력하면 더욱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교수는 강연을 통해 “종교간의 주요 갈등 요인은 배타주의이며, 이는 교리적 독단주의, 종파적 우월주의, 종교적 패권주의 때문에 발생한다”며, “종교편향 배제 방안으로 배타주의의 지양과 종교 다원주의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한국불교 미륵종 종정 추대법회



한국불교 미륵종(총무원장 덕운) 제6세 종정에 무불당 법상스님이 추대됐다. 6월 18일 광주 무등산 미륵사(주지 해법)에서 총무원장 덕운 스님, 종회회장 지운 스님, 원로의장 법조 스님 등 종단 스님을 비롯해 성우 스님(불교TV 회장), 종오 스님(제주 관음사 주지), 연광 스님(광주불교연합회 회장), 윤장현 광주시장 당선자 등 대중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정 추대법회가 열렸다.

이날 종정으로 추대된 법상 스님은 법어를 통해 “남은 여성 미륵종에 생명과 마음을 다해 미륵상생 도솔천의 길을 닦고, 아래로는 미륵학생의 현세 중생을 위한 십선업(十善業)을 닦게 하여 만유중생이 서로 돕고 의지하고, 자비의 대승 보살행을 인류사회에 구현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십선업의 핵심인 사섭법(四攝法)을 설명하며, “철저한 수행가풍으로 술선수법하는 수행선지자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설명했다.

법상 스님은 통도사 행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통도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월하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극락선원에서 하안거, 동안거를 성만했으며, 울산 신흥사 주지, 경주 무량사 주지, 불국사 미술관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향불사 무불선원 회주로 주석하고 있다.

법어에 앞서 총무원장 덕운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무불 법상 대종사를 한국불교 미륵종 종정에 추대하게 됨을 전 종도와 함께 기쁜 마음 한량없다”며 “잠시 혼란스러웠던 우리 종단에 이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심곡사 칠층석탑 사리장엄 공개



익산 심곡사 칠층석탑 사리장엄이 일반에 최초 공개됐다.

익산 심곡사(주지 화평)와 국립 전주박물관(관장 유병하)은 6월 18일 전주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칠층석탑 사리장엄을 소개하는 특별기획전 ‘장엄과 공덕’전을 개최했다.

8월 24일까지 열리는 이번 특별기획전에서는 심곡사 칠층석탑 중대석에서 발견된 금동불, 불갑, 백자사리호 등 귀중한 유물을 만날 수 있다. 이번 기획전에는 지난 2012년 심곡사 칠층석탑의 해체보수과정에서 발견된 백자 사리호 1점, 금동불입상 2구, 금동불 7구가 봉안된 금동불갑 등이 공개됐다.

공개된 사리장엄구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기단 중대석에 봉안되어 있던 금동불입상 2점이다. 불상의 뒤쪽이 편

평하고, 우두름이 볼륨이 없는 특징으로 보아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전라도 지역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점이 눈길을 끈다.

석탑 지대석에서 수습된 불갑 안에 함께 봉안돼 있었던 금동불 좌상 7점은 각기 다른 특징과 양식을 보이고 있다. 먼저 아미타삼존불은 고려 말에 들어온 원대 라마양식 불상의 영향을 받아 고려 말인 14세기 중엽에, 또 다른 4개의 불상은 상체가 짧고 체구에 비해 손이 작게 표현된 점으로 조선 초기 15세기 중엽에 각각 조성된 것으로 평가됐다.

개막식에 이어 익산 심곡사는 사리장엄의 특징과 성격을 규명하는 학술세미나를 전북사학회와 공동으로 박물관 강당에서 진행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나주 죽림사 괘불탱, 일반 전시

우리나라 괘불중 가장 오래된 죽림사 괘불이 일반에게 공개됐다. 나주 죽림사(주지 범용)는 6월 15일 국내 탕화 전문가들이 동석한 가운데 일반 신도들에게 보물 제1279호인 ‘죽림사 세존 괘불탱’ 친견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개된 괘불탱은 조선 광해 14년(1622)에 조성된 5.2m x 2.8m 크기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죽림사 괘불은 석가모니불이 연꽃 위에 결좌부좌 자세로 앉은 모습을 단독으로 그린 그림으로 조선후기 수인(首印), 신현(信軒) 두 화사가 그린 조선시대 일반불화나 괘불탱화에서 보기 드문 예이다. 현재 조선시대 괘불은 100점이 조금 넘게 남아 있다.

죽림사 세존 괘불탱은 문화재 변형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일반 공개를 하지 않았

으나 이날 공개는 탕화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을 위한 연구목적에 담아 진행했다.

이날 참여한 전문가들은 “탱화는 전체 6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마촉지인을 한 손가락이 크고 벌어져있어 17세기 특징을 잘 갖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일반 괘불탱은 영산회상을 기본으로 많은 불·보살님이 등장하지만 죽림사 괘불은 석가모니만을 모신 특이한 경우이며, 두광(머리쪽의 광배)옆의 오색 광선이 일반적으로 직선인데 비해 곡선으로 그려진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주지 범용 스님은 “불자들이 죽림사 괘불탱화를 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다행이다. 향후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참고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결혼이주여성들, 법주사서 산사체험

청주지역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불교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속리산 법주사에서 산사체험을 했다. 청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6월 16일 결혼이주여성 40명과 함께 속리산 법주사를 찾았다.

법주사 문화탐방행사는 청주 명장사(주지 김유정)에서 진행되는 ‘이주여성 한국 문화 새로 익히기’ 프로그램 중 하나로 두 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이날 결혼이주여성들은 속리산 오리 숲을 걸으며 한

국의 산과 숲 문화를 체험했다. 이들은 법주사 경내를 돌아보며 대웅전, 쌍사자석등, 팔상전 등 국보급문화재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한국불교문화의 우수성에 감탄했다.

견학에 참여한 한 이주여성들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문화적인 차이로 가정에서 불화를 종종 겪는다”며 “불교문화를 체험하면서 한국의 정서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건강백제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얇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기구 개인용온열돌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전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열침의효능 헬스벨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썩뎀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불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앓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썩뎀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썩뎀(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가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 발이차서분
*오심건,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허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현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심건조기,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